

## Chapter 14

# Conclusion

### 제 14 장 / 맺는말

왜 어느 학술지는 SCIE 나 Medline 학술지가 되고 어느 것은 되지 못하였을까?

우선 학술지를 SCIE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편지 쓰고 발송을 하였는지 그리고 Medline 등재 신청을 하고 발송을 하였는지 점검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6년부터 Thomson Reuters에서 지역학술지 선정 정책을 폈을 때 학술지가 도착을 하여야 무슨 심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다. 여러 학회가 '우리 학술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하고 망설이고 있는 동안 먼저 발송한 학술지는 상당수가 등재되었다. 예를 들어 편집인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학술지 인쇄한 출판사에서 발송 목록에 넣어서 보내어 그것이 심사를 받고 등재된 경우도 있다. 그 출판사는 당연히 다른 학술지처럼 일상적인 일로 발송목록에 Thomson Reuters를 넣어 보낸 것이다. 모든 학술지에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가 SCIE나 Medline 등재 전에 또한 서둘러야 할 일

은 영문으로 발행하고 원고편집인을 고용하여 학술지의 형식을 다듬는 것이다. 최근 SCIE 등재 준비하는 학술지를 한 종 사전 검토한 결과 참고문헌의 오류율이 34%가 나온 예가 있었다. 그 학술지에 원고편집인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일을 편집인이나 편집위원이 맡아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환자 보고 연구하고 교육하느라 시간을 쪼개고 쪼개도 바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원고편집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일의 한계가 있다. 이런 일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직업으로 하여야 하는 높은 수준의 일이다.

그리고 DOI도 eISSN도 없이 국제학술지로 키운다는 것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 영문으로 학술지를 전환하거나 발행하여 빠른 시일 안에 PMC에 등재되어 전 세계 학자가 인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에 학술 논문 찾으러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제는 인터넷에 자료가 있으면 인용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다들 바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없는 것을 인용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 학술지도 그렇게 인터넷에 국제 상업출판사가 만드는 누리집만큼은 만들어 놓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인터넷왕국에서 누리집을 국제수준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관심 부족이라고 밖에 여기지 않고 종이보다 인터넷 누리집을 만 배 이상 접근 가능하므로 최소 10배는 더 투자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거꾸로이다. 종이잡지는 없어도 누리집 잡지는 존재하여야 한다. 현실은 국내 학자로부터 좋은 논문도 투고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style 및 형식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이어야 점차 투고 논문 수준도 올라간다. 한 달이면 모든 것을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갖추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최고의 원고편집인을 고용하거나 국내 원고편집인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편집인을 지원하고, 학술지 구성 요소 및 투고규정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최고수준의 학술지 디자인 및 레이아웃과 함께 최고 수준 학술지 제

작 인쇄,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 누리집 제작 및 archiving, DOI 창간호까지 소급, 영문 학술지로 전환 및 원어민에 의한 영문 교열, PubMed/PMC 등재 등과 더불어 영향력지표(impact factor)를 최소 0.5 이상 가능하다면 1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좋은 논문을 투고 받는다면 지역학술지 선정 정책이 아직 그대로 있으므로 SCIE 등재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Medline 등재는 매우 까다로운 심사로 등재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반드시 영문으로 발행하여 PubMed에 먼저 등재되고 나서 Medline 등재 심사를 다시 신청하는 전략을 펴고, 다양한 독자층에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고 다양한 출판양식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훌륭한 연구 내용이 영문으로 전세계인의 건강과 과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정보로 전파하는 것도 연구자의 사명이므로 과학 및 의학학술지는 반드시 영문으로 발행하는 것이 국가 및 국민의 브랜드를 키우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과학과 의학에서 꿈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학술지는 학회의 거울이다. 이 거울의 모습이 어디쯤 와 있는 지 최근 발행한 KAMJE JOURNALS 2009를 보면 알 수 있다.<sup>1</sup> 놀랍도록 훌륭한 학술지가 많으므로 앞으로 더욱 많은 학술지가 SCIE 등재될 것을 확신한다.

## REFERENCES

1.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Journals. Seoul (KR):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2009. Available from: <http://kamje.kr/>